

금강산유람가



[해제]

<금강산유람가>는 작자 및 제작연대 미상의 기행가사 작품이다. 두루마리에 순국문 표기로 <금강산유람가>와 <남정녹> 두 편의 가사가 필사되어 있으며, 원전의 크기는 670*21cm이다. 이 가사의 내용은 화자가 번잡하고 무상(無常)한 세상일에서 잠시 벗어나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여행한 여정과 감회를 읊은 것이다. 다른 금강산 기행가사와는 달리 여정에 있어서 금강산 일대의 사찰과 암자들에 중점을 두어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강산유람가>는 1935년에 간행된 불교의례집 『석문의범』의 증보판 부록에 수록된 <금강산유산록(金剛山遊山錄)>의 이본으로 추정된다. <금강산유산록(金剛山遊山錄)>과 이 작품을 비교해 보면 표기법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금강산유산록(金剛山遊山錄)>과 대조했을 때, <금강산유람가>에는 관동팔경을 여행한 내용이 상당부분 빠져있고, 여정의 서술 순서도 두세 곳 뒤바뀌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작품 말미에는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어보소~”로 시작하는 부기(附記)가 있는데, “이 가사 금강산에 단체로 간 단장(團長)이 지었으니 내 갔던 자취로 베껴 왔으니 심심하거든 보아라”라는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이 작품은 부녀자들이 금강산을 단체로 유람한 뒤 그 여행을 인솔했던 단장이 지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작품 전반에서 여성이 창작한 가사 특유의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확신할 수는 없다.

[원문]

금강산유람가

시절조흔 추팔월의 금강구경 흥번흥식
 문전일보 나와서니 철이강산 지척이라
 죽장망혀 단표조로 삼삼오오 작반하야
 봉늬철이 버든길노 관동산천 드러갈제
 김화김성 얼는지나 단발영을 내려서서
 금광산을 바라보니 엇지보기 느졌던고
 일딴천하 명산니요 십방세계 불국이라
 장안사로 드러가니 좌우섯난 로영신은
 사람보고 축각하니 운주문의 혈각하고
 만천교을 건너서서 만슈정 범왕누의
 산천경기 바라보니 산은첨첨 천봉이요
 물은잔잔 벽계로다
 물학단풍 구월추은 변화을 자랑하고
 금풍당서 은환청은 추흥을 도도난다
 덕웅보전 드러가니 이층감전 금법당의
 삼세여리 육광보살 원만상호 거룩하다
 사성전의 십육상은 니응조사 조각이요
 현판글조 신묘하야 미도정등 일흥좃타
 신선노의 올나가니 우화유세 표표하니
 장경봉 장경암은 하연천을 조건니며

관음봉하 관음암은 엇지그리 절묘한가
지장수월 양암이요 석가지장 두봉이라
빅옥봉봉 암석이요 청년곳곳 암조로다
전녁밥을 혈노하고 한등여창 누어써니
망세간지 감조로다

세벽중 우난소리 사창서식 영농하다
아침밥을 직촉하야 청년장을 다시잡고
오리봉을 열년지나 업경디에 다다르니
명견디와 옥경디난 셔국진경 분명하다
황천강과 지옥문은 풍도세기 이아닌가
금스굴 흑스굴은 보던사람 전을하고
경순왕조 덕궐터난 고목하나 쏘니로다
영원암을 차조가니 영원조소 견성처라
일초암니 의의하야 빅운노승 한간일식
십왕사조 판관봉과 우두마면 옥초디가
지강둥둥 열납하고 명부도장 완연하니
녀보시오 세상사람 히두일고 하야보소
영왕불박 피금니난 이곳두고 일너쉬나
빅탐동을 지나가니 팔만사천 보탑니라
징명탐과 다보탐은 디소장단 무량하닉
수렴동을 지닉셔셔 기슬암을 드러가니
천티산이 나반존자 시사용화 하난고나
이층철사 후어잡고 만군디을 올라가니
실나말의 금부디왕 망군하던 석디로다
삼억동이 상존하니 당년풍진 방불인듯
사위천벽 저청산아 써머거던 히지말고
삼면색닙 저힌돌아 히여써던 썸지마라
티고천지 초판후의 천진면목 기이하다
능나암을 초조가니 히정조사 슈도처라
십천수목 울밀하디 나월송풍 슬허한다
청기수와 옥계수를 할양업시 먹은후의
안양암을 닐러와셔 칠성곽을 잠관보고
뫼연담의 다다르니 김동거사 명동처라
시치암아 주닌되고 상지암니 삼조되야
양양천고 수성중의 여은녀묘 오염한다
천왕바취 본닌후의 빅화암을 올라갈지
삼불암을 살펴보니 나옹선사 죠성이요
후면주각 육십불은 김동처스 유적이라

수충영각 압피잇고 부도비석 뒤의잇니
 돈도암을 올라가니 흥도비구 잇던처라
 일기신심 수사본은 경세동의 말이로다
 표훈사로 닐러올지 상수문을 바라보니
 함영고도 뎡커니와 녕마누가 더욱돏타
 상선반약 법계보살 헌신반공 허셔스며
 응진미타 명부전의 사시향화 불절흔다
 관동풍악 영변관은 각스청청 반가와라
 연스묘종 저문날의 십이난간 으지하고
 쳐쳐지조 삼관일의 전양사로 차즈갈지
 천일티을 잠관보고 혈성누의 우목하니
 천금광의 덕관니라 김상일층 허야보세
 일만이천 중소봉은 십첩병풍 지어천의
 중향성의 범천궁의 법기보살 주석되고
 육척반약 히조음의 인계천도 운집한다
 퍽마봉과 차일봉은 동방갑기 진정하고
 삼인봉 노적봉은 남국중의 다왓도다
 셔천을 바라보니 방광디디 빅지령과
 북두칠성 머러보니 영낭디가 차야한다
 일출봉 월출봉과 승상봉 석응봉은
 지일인간 기절처운 천하무상 장관누라
 기춘니며 우귀추요 소인목각 풍월구는
 악양누을 보려허며 운미월익 황금조난
 한스스을 원할손가
 약스전 육면각은 만월세계 여기로다
 진심석현 청년암과 덕비곽을 다본후의
 표훈스의 다시와셔 동일노곤 진정하고
 금강문을 너머셔셔 슈미탑을 차즈갈지
 청호년과 용곡담을 육칠살이 점횡허야
 니원통암 드러가니 용치지가 장관니요
 십수익의 관음상과 십육이즈 나환니라
 만철동과 티상동은 소소역역 다본후의
 선암으로 나와가니 박빈거스 부도처라
 장군수의 흐르난물 표자살너 양손먹고
 동셔사우 살펴보니 다보미타 청학디라
 석년거스 간곳업고 일편석션 나마수나
 천왕바위 무건수와 좌운담을 지니셔셔
 수미암을 전도하니 원효야운 부도처라

일망서로 호활하야 약수유스 불미로다
수미탑을 구어보니 비옥칭칭 천진탑이
우진왕의 공장인가 도화옹의 슈교로다
십이점종 더러첫셔 만폭동중 도착하니
봉네풍악 원화동천 팔지자가 휘황하다
삼손국의 바둑판은 사호선인 바둑쓴다
왕선봉을 바나보니 왕조치봉 의히하고
청학봉의 소위현상 알연장명 횡감니라
관음보살 세발처난 세수분니 지금잇니
방선교을 건너셔셔 영아지을 구어보니
빅마담성 천고수난 청년담을 상연하고
빅파담의 천척수난 일넙흥연 필만하다
만상암을 구경하고 보독굴암 드러가니
십구층의 뿌리기동 계관산식 누르렀다
선인신도 아니시면 천상지조 작실하니
분설탑을 니려오니 팔월상풍 헛날녀셔
호호탕탕 무변하야 요락동천 험난고나
천규만규 진주담은 금곡석순 이안인가
청지킵석 요동처요 지월광풍 김별전은
우암선싱 필적이라
기담선담 화룡담은 팔담중의 지일일식
장경암을 도라보니 빅천판조 식여스며
사조암이 호곡소리 규슈위풍 험난고나
마아연을 드러가니 금광산의 증왕이라
빅슈자화 노피들여 지일선원 걸넉혜라
만희암을 초조가니 히순관음 도장이라
남순동자 히상용왕 좌우시위 하여잇고
빅석딕가 광활하야 화과나열 독하도다
철스다시 후어잡고 빅운디네 올라가니
운빅산빅 양빅중의 운손징용 불별일식
금강슈 조흔물은 계벽화쟁 분명하다
가섭동을 초조가니 음광촌조 미소하고
불지암을 초조가니 세도딕왕 동순시의
기도하던 넷날일의 오날인덧 완연하다
그령저령 밤식우고 사선교의 도달하니
무지령의 흐르난물 빅화담슈 디여잇고
칠보디에 느진안게 빅정으로 도라든다
금스슈의 히갈하고 점심점의 니려가니

은선덕에 선인드리 원각형인 말유한다
 십이폭포 기천하야 여산면목 이고진덧
 효운동천 운섬하고 청천의 달인석벽
 만장이나 특슈한다 유점수의 드러가니
 일천구획 삼십년전 노춘시가 창건하니
 한무직에 시절이요 동양슈설 범우로다
 능인보전 금탁상의 턴니풍이 장취하고
 느릅나무 뿌리마다 오십삼불 안조섯다
 전등중의 구층탑은 오동철간 기묘하다
 육척이십 삼년전의 기성디스 조각이라
 오탁슈를 먹은후의 차리차리 구경하고
 산영누의 나아가니 팔월향풍 청추로다
 범동누의 저문쇠북 철이산을 진동하니
 이만이천 그건슈난 막디하고 놀납도다
 티우비범 보살복은 사명영광 격은니요
 사히파깅 용은수난 용엄누의 특식이라
 산중여형 피곤하야 상호상천 혈각한다
 반약암 명적벽년 득도흥성 모든암조
 차조가서 다보고서 휘황지를 봉건하고
 중니원을 올라갈지 반약터를 얼는보고
 선담으로 나아가니 청산녹수 은연하다
 만경덕와 불정단은 망지울년 고절하고
 귀연담과 옥호동은 진세님이 돈절한다
 사조목을 넘어서서 니원암을 드러가니
 천거복의 도장이라 디소망원 무슈하다
 티월암을 초조보고 미륵봉을 올라가니
 히발천척 늪흔바취 운소중의 소서잇고
 다기봉 축디봉과 향노봉이 라널헛다
 송님굴의 나문사적 일성일피 철이로다
 경치조흔 이암조의 하로밤을 으탁하조
 아침밥을 직촉하야 송님수를 흐직하고
 학소터를 바라보니 정영위가 다시온덧
 청학이며 빅학드리 우의무가 낭적하니
 청경산원 현과하고 봉다소동 춤추엇다
 천상인지 인간인지 오미지기 소기로다
 신금강을 구경하니 보살굴이 더욱쫓타
 자고이리 숨어던걸 슈십년전 발견헛다
 온진세계 몇백년의 지금와서 초조스니

긴환전길 상관업다 무릉동원 여기러니
 춘리편시 도화수난 어주자가 온수로다
 종초지시 낙인간은 이곳두고 일너쉬나
 보현동을 초조가니 보현보살 시현처요
 약고평의 다다르니 노춘부닌 신묘로다
 발연고사 초조가니 신계소의 전신니라
 신표율사 청견트니 창희상전 번복일니
 발연폭의 슬픈소리 기왕스를 말하고조
 동석동을 드러가니 수정으로 성최로다
 산명곡은 그모양은 유리세계 일반니라
 자동차의 몸을시러 히금강의 구경가조
 고성군의 다투와셔 삼일포을 바라보니
 사선정이 표묘하고 동천암이 의의하다
 완치정난 청청하니 동정호가 이곳이요
 풍니수면 잇씨로다

적벽강의 도선하야 현종암의 다다르니
 오십삼불 타신석션 사공업셔 못부리고
 석션우의 외인닷줄 지금까지 펄노하닉
 현동바취 삼덕글자 양봉닉에 친필이요
 영낭호의 파랑업셔 구선봉이 다풌조한다
 히금강은 밧건니와 신구만물 나마스니
 금시와셔 아니보면 강덕하일 하야볼가
 신기스의 당두하닉 외금강의 기관이라
 집선봉의 조던구름 풍편쫓쫓 살락하고
 문필봉의 묘한형용 세존봉을 덕하얏닉
 보광보운 두암조난 염불관지 상방이라
 금광굴 사조굴과 상운법계 문수암을
 일일납문 탐문하닉 명불허전 실사로다
 구룡면니 어덕뫼요 각근아가 요요한다
 강천막막 조비하고 풍은시시 용음이라
 금광문의 여셔거러 옥유동의 당도하닉
 주전옥반 그형상은 주루세옥 그소리라
 비봉폭포 싱겨거든 무봉포가 잇지말지
 구룡포의 직하수난 삼천척이 비소하닉
 이시은하 낙구천은 불시과은 명소로다
 만장노기 놀파스니 일유흘너 일담이라
 여시여시 부여시난 팔담청수 덕엿도다
 철사한번 휘여잡고 등고원망 하야보니

서촉비단 칙년상의 삼월이화 난만하다
오든씩지 다시돌여 신계소의 유숙하고
극낙고기 너머서서 은동이네 다다르니
무연화가 이섯난지 칙비탕이 절노잇닉
세조열녀 온천수난 중싱약왕 이안인가
기연고희 모든씩을 청양수의 모욕하고
원정영 가던길노 육화암의 득달하니
만물초의 동구로다 어셔나 구경하식
석노천년 부치갓고 구봉만장 집갓도다
와관성봉 칙성영은 이곳두고 한말이라
인나라면 인형이요 션나라면 션형이라
하온기봉 변한하니 그로위히 그로한다
옥여금병 난삼하고 전포장군 투한덧다
칙억하신 석가불이 분신칙억 하셔스며
삼십이응 관조지제가 보문시헌 하섯고나
히산션스 돌을하야 거절하면 불견니요
화등저병 협사하니 요기하면 불견한다
신구만물 다본뒤예 통천으로 내려가셔
총석정을 찾아가니 육면팔면 석인석주
용화세기 기두루고 공수조이 모힌슈단
석지탄마 분주하다
야삼길 파말이에 칙구비릭 상하하고
고저촌의 저문안기 우양자기 촌항이라
금광산을 하직하고 함남제일 독원동의
명스십이 초저가니 히당화난 간곳업고
송씩청풍 분니로다 명춘다시 언악하고
고향으로 도라와셔 팔월소풍 고결흔되
와류금강 누엇드니 소소낙엽 다소성의
경기하니 추손모라
동차금강 머러지니 어상망어 강호로다
어와세상 사람드라 이말삼을 드러보소
인계과이 머즌으니 일흠강손 편답할지
그어디 승경쳐요 세계지일 금강산은
인인니 보난이가 면면니 찬성하니
이늑몸이 여즈로나 한번구경 원일너니
천우신초 하얏던지 무인팔월 십팔일은
호풍이 인도하스 바람을 싸라간지
사람을 싸라간지 금강손의 인도하야

십오일을 구경하니 정신니 식식하야
다시음 살펴보니 별유천지 거기로다
듯던중 상귀하며 보던중 제일구경
팔월설풍 별세계라
곳곳지 단풍빛흔 슈단갓치 찰난하고
쳐쳐 부쳐님은 사람보고 웃난덧다
관스갓치 지은절은 오식단청 기절터라
경성으로 구경하니 인가도 굉장하다
거리거리 촌소리의 보논츄 얼넌타고
고향으로 내려오니 몽가청상 이안인가
어나호시 그곳가셔 금번갓치 노라볼고
훈가이누어 심각하니 기절한 고봉슈석
철스줄 쇠다리가 어찌본덧 완년하다
심중의 미진하니 만으나 사람사람 일반니라
셔중 기축지곳 여즈탄식 슬푸도다
이가스 금강손의 단최로간 단장이
지어시니 닉갓던 기척으로 퍽겨와시니
심심허거던 보아라

[현대역]

금강산유람가

시절 좋은 추(秋) 팔월에 금강 구경 한번 하세
 문 앞에 한 걸음 나와 서니 천리 강산이 지척(咫尺)1이러
 죽장망혜(竹杖芒鞋)2 단표자(單瓢子)3로 삼삼오오(三三五五)4 작반(作伴)5하여
 봉래(蓬萊)6 천리 뺨은 길로 관동(關東) 산천 들어갈 제
 김화김성(金化金城) 얼른 지나 단발령(斷髮嶺)7을 내려 서서
 금강산을 바라보니 어찌 보기가 늦었던고
 일대(一代) 천하(天下) 명산(名山)이요 시방세계(十方世界) 불국(佛國)이라
 장안사(長安寺)8로 들어가니 좌우(左右)에 서 있는 로령신(路靈神)9은
 사람보고 축객(逐客)10하네 운주문(雲住門)에서 헐각(歇脚)11하고
 만천교(萬川橋)를 건너 서서 만수정(萬水亭) 범왕루(梵王樓)의
 산천경개(山川景概)12 바라보니 산은 첩첩(疊疊)13 천봉(千峰)이요
 물은 잔잔(潺潺) 벽계(碧溪)14로다
 물학단풍 구월(九月) 추(秋)는 번화(繁華)15함을 자랑하고
 금풍당서 은환청은 추흥(秋興)을 돋우는구나
 대웅보전(大雄寶殿)16 들어가니 이층(二層) 감전(紺殿)17 금법당(金法堂)에
 삼세여래(三世如來)18 육광보살(六光菩薩)19 원만상호(圓滿相好) 거룩하다
 사성전(四聖殿)20 십육상(十六像)은 나옹조사(懶翁祖師)21가 만든 것이요
 현판(懸板)22 글자 신묘(神妙)하여 미도정중(未到亭中) 이름 좋다
 신선루(神仙樓)에 올라가니 우화유세(羽化遺世)23 표표(飄飄)24하네
 장경봉(長慶峰) 장경암(長慶庵)은 조물주의 조건(造建)25이며
 관음봉하(觀音峰) 아래 관음암(觀音庵)은 어찌 그리 절묘(絶妙)한가
 지장수월(地藏水月) 양암(兩庵)이요 석가(釋迦)26 지장(地藏)27 두봉이라
 백옥봉봉(白玉峰峰) 암석(岩石)이요 청연(靑烟) 곳곳28이 암자(庵子)로다
 저녁밥을 다 먹고서 한등여창(寒燈旅窓)29에 누웠더니
 망세간지(忘世間之) 갑자(甲子)로다
 새벽종 우는 소리에 사창서색(紗窓曙色)30 영롱(玲瓏)31하다
 아침밥을 재촉하여 청려장(靑藜杖)32을 다시 잡고
 오리봉(五里峰)을 얼른 지나 업경대(業鏡臺)33에 다다르니
 명경대(明鏡臺)34와 옥경대(玉鏡臺)35는 서국(西國)36 진경(秦鏡)37이 분명하다
 황천강(黃泉江)과 지옥문(地獄門)은 풍도세계(豐都世界)38 이 아닌가
 금사굴(金蛇窟)과 흑사굴(黑蛇窟)은 보던 사람 전율(戰栗)39하고
 경순왕자(景順王子)40 대궐(大闕)터는 고목 하나 뿐이로다
 영원암(靈源庵)41을 찾아가니 영원조사(靈源祖師)42 견성처(見性處)43라
 일초암(一草庵)이 의의(猗猗)44하여 백운(白雲) 노승(老僧) 한 칸(間)일세
 시왕사자(十王使者)45 판관봉(判官峰)과 우두마면(牛頭馬面)46 옥초대(沃焦臺)가

제강중중(帝綱重重)47 열립(列立)48하고 명부(冥府)49 도장(道場)50 완연(完全)하니
 여보시오 세상사람 머리 일고(一顧)51 하여보소
 영왕불파(閻王不怕) 패금어(珮金魚)52 이 곳 두고 일렀구나
 백탑동(萬塔洞)을 지나가니 팔만사천(八萬四千) 보탑(寶塔)이라
 증명탑(證明塔)과 다보탑(多寶塔)은 대소장단(大小長短) 무량(無量)53하네
 수렴동(水簾洞)을 지나서 기슬암을 들어가니
 천태산(天台山)54에 나반존자(那畔尊者)55 대사용화(待娑龍華) 하는구나
 이층 철사(鐵絲) 휘어잡고 망군대(望軍臺)를 올라가니
 신라(新羅) 말(末)의 김부대왕(金傅大王) 망군(望軍)하던 석대(石臺)로다
 삼억동(三億洞)이 상존(常存)하니 당년풍진(當年風塵) 방불(彷彿)인 듯
 사위천벽(四圍天壁) 저 청산아 검거든 희지 말고
 삼면삭립(三面削立) 저 흰 돌아 하얗거든 검지 마라
 태고천지(太古天地) 초판 후에 천진면목(天真面目)56 기이(奇異)하다
 능나암을 찾아가니 회정선사(懷正祖師)57 수도처(修道處)라
 십천수목 울밀(鬱密)58한데 나월송풍(蘿月松風)59 쇄락(灑落)하다
 청계수(淸溪水)와 옥계수(玉溪水)를 마음껏 먹은 후에
 안양암(安養庵)을 내려와서 칠성각(七星閣)을 잠깐 보고
 명연담(鳴淵潭)60에 다다르니 김동거사(金同居士)61가 명종처(命終處)62라
 시체암(屍體岩)이 주인(主人)되고 상제암(喪制岩)이 삼자(三子)63 되어
 양양천고 물소리 중에 여원여소(如怨如訴) 오열(嗚咽)한다
 천왕(天王) 바위 보낸 후에 백화암(白華庵)을 올라갈 제
 삼불암(三佛岩)64을 살펴보니 나옹선사(懶翁禪師)65가 만든 것이요
 후면에 조각된 육십불(六十佛)은 금동처사(金同處士) 유적(遺蹟)이라
 수충영각(酬忠影閣)66 앞에 있고 부도비석(浮屠碑石) 뒤에 있네
 돈도암(頓道庵)을 올라가니 홍도비구(弘道比丘)67 있던 곳이라
 일기진심(一起嗔心) 수사보(受蛇報)는 경세종(警世鍾)의 말이로다
 표훈사(表訓寺)로 내려올 때 상수문(相隨門)을 바라보니
 함영고68도 좋거니와 녕마누69가 더욱 좋다
 상설반야(常說般若)70 법기보살(法起菩薩)71 반공(半空)에 현신(現身)72 하셨으며
 응진미타(應眞彌陀) 명부전(冥府殿)73에 사시향화(四時香火)74 부절(不絕)75한다
 관동풍악(關東楓岳) 영빈관(迎賓館)은 객사청청(客舍靑靑) 반가워라
 연사모종(烟寺暮鍾)76 저문 날에 십이난간(十二欄干) 의지(依支)하고
 처처제조(處處啼鳥)77 삼간일(三竿日)78에 정양사(正陽寺)79로 찾아갈 제
 천일대(千一臺)를 잠깐 보고 힐성루(歇惺樓)에 올라가니
 천금강(千金剛)의 대관(大觀)80이라 갱상일층(更上一層)81 하여 보세
 일만이천(一萬二千) 중소봉(中小峰)은 십첩병풍(十疊屏風)으로 하늘에 달아 있고
 중향성(衆香城)의 범천궁(梵天宮)에 법기보살(法起菩薩) 주석(主席)82되고
 육백반야(六百般若)83 해조음(海潮音)84에 인계천도(人界天道) 운집(雲集)85한다

백마봉(白馬峰)과 차일봉(遮日峰)은 동방의 첫번째가 진정 맞고
삼인봉(三人峰) 노적봉(露積峰)은 남극중(南極中)에서 다 왔도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 방광대(放光臺)86 배재령(拜再嶺)87과
북두칠성(北斗七星) 멀리 봄에 영랑대(永郎臺)가 또한 높다
일출봉(日出峰) 월출봉(月出峰)과 승상봉(承相峰) 석응봉(石鷹峰)은
제일인간(第一人間) 기절처(奇絶處)88요 천하무쌍(天下無雙) 장관(壯觀)이라
기춘이면 우귀추요 소인묵객(騷人墨客)89 풍월구(風月句)는
악양루(岳陽樓)90를 보려하며 운미월액 황금 자(字)는
한산사(寒山寺)91를 원하겠는가
약사전(藥師殿)92 육면각(六面閣)은 만월세계(滿月世界) 여기로다
진심석현 청련암(靑蓮庵)과 대비각(大悲閣)을 다 본 후에
표훈사에 다시 와서 하루의 피로 진정하고
금강문(金剛門)을 넘어 서서 수미탑(須彌塔)93을 찾아갈 제
청호연(靑虎淵)과 용곡담(龍谷潭)을 육칠리(六七里)를 점행(漸行)94하여
내원통암(內圓通庵)에 들어가니 용추지(龍湫池)95가 장관(壯觀)이요
십수백의(十手白衣) 관음상(觀音像)과 십육이자 나한(羅漢)96이라
만절동(萬折洞)과 태상동(太上洞)을 소소역력(昭昭歷歷)97 다 본 후에
선암(船庵)98으로 나아가니 박빈거사(朴彬居士)가 득도(得道)한 곳이라
장군수(將軍水)에 흐르는 물 표자(瓢子)99 끌러 양껏 먹고
동서사우(東西四隅)100 살펴보니 다보미타(多寶彌陀) 청학대(靑鶴臺)라
석년(昔年)101 거사(居士) 간 곳 없고 한 조각 석선(石船)만 남았구나
천왕(天王)바위 무근수(無根水)102와 자운담(紫雲潭)을 지나가서
수미암(須彌庵) 앞에 도착하니 원효(元曉)103와 야운(野雲)104이 공부하던 곳이라
한번 바라보니 서(西)로 호활(浩闊)105하여 약수유사(弱水遺事)106 멀지 않았도다
수미탑(須彌塔)을 굽어보니 백옥층층(白玉層層) 천진탑(天真塔)이
우전왕(優填王)107의 공장(工匠)인가 조화옹(造化翁)의 수교(手巧)108로다
십륙점종(十二點鐘) 들릴 무렵 만폭동(萬瀑洞) 가운데 도착하니
봉래풍악(蓬萊楓岳) 원화동천(元化洞天)109 여덟 글자가 휘황(輝煌)110하다
삼산국(三山局)의 바둑판은 사호선인(四皓仙人)111이 바둑 둔다
왕선봉112을 바라보니 왕자취봉(王子吹鳳) 의희(依倚)113하고
청학봉(靑鶴峰)에 소의현상(素衣玄裳)114 알연장명(戛然長鳴)115 강을 가로지르네
관음보살(觀音菩薩)116이 머리를 감은 곳에는 세두분(洗頭盆)117이 지금도 있네
방선교(訪仙橋)를 건너서서 영아지(映娥池)를 굽어보니
백마담성(白馬潭聲) 천고수(千古愁)는 청룡담(靑龍潭)을 상연하고
벽파담(碧波潭)에 천척수(千尺水)는 일엽홍련(一葉紅蓮)118이 가득 찼네
만상암(萬像岩)을 구경(觀景)하고 보덕굴암(普德窟庵) 들어가니
십구층(十九層)의 구리 기둥은 계광산색(溪光山色)119을 눌렀도다
선인(仙人) 신(神)도 아니 만든 것이면 하늘이 만든 것이 적실(的實)120하네

분설담(噴雪潭)을 내려오니 오월상풍(五月霜風) 흘날려서
 호호탕탕(浩浩蕩蕩)121 무변(無邊)122하여 요락동천(寥落洞天)123 하는구나
 천규만규(千揆萬揆) 진주담(眞珠潭) 금곡석순(金谷石崇)124 이 아닌가
 청지백석(淸池白石) 요동처((聊同處)125요 제월광풍(霽月光風) 갱별전(更別傳)126은
 우암선생(尤庵先生)127 필적(筆蹟)이라
 기담선담(奇潭仙潭) 화룡담(火龍潭)은 팔담(八潭) 중에 제일일세
 장경암(藏經巖)을 돌아보니 백천판자(百千板子) 새겨져 있고
 사자암(獅子巖)에 호곡(號哭)128소리 두수(抖擻)129 위풍(威風)이로구나
 마하연(摩訶衍)130을 들어가니 금강산(金剛山)의 한 가운데라
 백수자화(柏樹子話)131 높이 들어 제일(第一) 선원(禪院) 건립(建立)하였네
 만회암(萬灰庵)을 찾아가니 해수관음(海水觀音)132 도장(道場)133이라
 남순동자(南巡童子)134 해상용왕(海上龍王) 좌우시위(左右侍衛)135 하여 있고
 배석대(拜席臺)136가 매우 넓어 화과나열(花果羅列) 족하도다
 철사(鐵絲) 다시 휘어 잡고 백운대(白雲臺)에 올라가니
 구름이 희고 산 또한 흰빛이라 양백중(兩白中)에 운산진용(雲山眞容) 불변(不辨)137일세
 금강수(金剛水) 좋은 물은 계력화쟁 분명하다
 가섭동(迦葉洞)을 찾아가니 음광존자(飲光尊者)138 미소(微笑)하고
 불지암(佛地庵)을 찾아가니 세조대왕(世祖大王) 동순시(東巡時)139에
 기도(祈禱)하던 옛날 일이 오늘인 듯 뚜렷하다
 그럭저럭 밤 새우고 사선교(四仙橋)140에 도달(到達)하니
 무재령(霧岾嶺)에 흐르는 물 백화담수(百花潭水) 되어있고
 칠보대(七寶臺)에 늦은 안개 백정으로 돌아든다
 금사수(金沙水)에 해갈(解渴)141하고 점심(點心) 정에 내려가니
 은선대(隱仙臺)에 선인(仙人)들이 원객행인(遠客行人)142 만류(挽留)143한다
 십이폭포(十二瀑布) 하늘로 열려있어 여산면목(廬山面目)144 이 곳인 듯
 효운동천(曉雲洞天) 운습(雲濕)하고 푸른 하늘에 달린 석벽(石壁)
 만장(萬丈)이나 특수(特秀)145하다 유점사(楡岾寺)로 들어가니
 일천 구백 삼십년 전 노춘씨(盧椿氏)146가 창건(創建)하니
 한무제(漢武帝)의 시절이요 동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범우(梵宇)147로다
 능인보전(能仁寶殿)148 금탑(金塔) 위에 천축풍(天竺風)이 장취하고
 느릅나무 뿌리마다 오십삼불(五十三佛) 앉으셨다
 전정중(殿庭中)149에 구층탑(九層塔)은 오동(烏銅)150 찰간(刹竿)151 기묘(奇妙)하다
 육백 이십 삼년 전에 기성대사(起惺大師)가 만든 것이라
 오탁수(烏啄水)를 먹은 후에 차례차례 구경하고
 산영루(山映樓)에 나아가니 팔월 향풍(香風)152 청추(淸秋)153로다
 범종루(泛鍾樓)에 저문 쇠북 철위산(鐵圍山)154을 진동하니
 이만이천(二一萬二千) 그 무게는 막대하고 놀랍도다
 태우비범의 보살복(菩薩服)은 사명영각(四溟影閣)155 겪은 것이요

사해파정(四海波靜)156 용은수(龍穩睡)는 용음루(龍吟樓)에 특색(特色)이라
 산중 여행 피곤하여 상호상천 혈각(歇脚)157한다
 반야암(般若庵) 명적(明寂庵) 백련암(白蓮庵) 득도흥성(得道興盛)158한 모든 암자(庵子)
 찾아가서 다 보고서 희황제(羲皇帝)159를 봉견(奉見)160하고
 중내원(中內院)을 올라갈 제 반야대(般若臺)를 얼른 보고
 선담(船潭)으로 나아가니 청산녹수(靑山綠水) 은영(隱映)161하다
 만경대(萬景臺)와 불정단(佛頂壇)은 망지울연(望之蔚然)162 고절(高絶)163하고
 귀연담과 옥호동(玉壺洞)에서는 진세념(塵世念)164이 돈절(頓絶)165한다
 사조목을 넘어서서 내원암(內圓庵)으로 들어가니
 천(千) 거북의 도량(道場)이라 대소방원(大小方圓)166 무수(無數)하다
 태월암을 찾아보고 미륵봉(彌勒峰)을 올라가니
 해발(海拔) 천척(千尺) 높은 바위 운소중(雲宵中)167에 솟아 있고
 다기봉(茶器峰) 촉대봉(燭臺峰)과 향로봉(香爐峰)이 나열했다
 송림굴(松林窟)에 남은 사적(史蹟) 일성일패(一成一敗)168 하늘의 이치로다
 경치 좋은 이 암자에 하룻밤을 의탁(依託)169하자
 아침밥을 재촉하여 송림사(松林寺)를 하직하고
 학소대(鶴巢臺)를 바라보니 정령위(丁令威)170가 다시 온 듯
 청학(靑鶴)이며 백학(白鶴)이며 우의무(羽衣舞)171가 낭자(浪藉)172하니
 청경산원(聽經山猿) 헌과(獻果)하고 봉다소동(奉茶小童) 춤 추었다
 천상(天上)인지 인간(人間)인지 오미지기(吾未知其) 소이(所以)173로다
 신금강(新金剛)을 구경하니 보살굴(菩薩窟)이 더욱 좋다
 자고이래(自古以來)174 숨어 있던 것을 수십년 전 발견했다
 홍진세계(紅塵世界) 몇백년에 지금 와서 찾았으니
 진한전쟁(秦漢戰爭) 상관없다 무릉도원(武陵桃源)175 여기일 것이니
 춘래(春來) 편시 도화수(桃花水)는 어주자(魚舟子)176가 원수(怨讐)로다
 종차시지(從此始之)177 낙인간(落人間)은 이 곳 두고 일렀구나
 보현동(普賢洞)을 찾아가니 보현보살(普賢菩薩)178 나타나신 곳이라
 약고평에 다다르니 노춘부인(盧椿夫人)의 신묘(神廟)179로다
 발연고사(鉢淵古寺) 찾아가니 신계사(神溪寺)의 전신(前身)이라
 진표율사(眞表律師) 청견하더니 창해상전(滄海桑田)180 번복일세
 발연폭포(鉢淵瀑布) 슬픈 소리 기왕사(既往事)181를 말하고자
 동석동(動石洞) 들어가니 수정(水晶)으로 만들었도다
 산명곡응(山鳴谷應) 그 모양은 유리세계(琉璃世界)182와 한 가지라
 자동차에 몸을 실어 해금강(海金剛)에 구경가자
 고성군에 내려와서 삼일포(三日浦)183를 바라보니
 사선정(四仙亭)이 표묘(飄渺)184하고 동천암185이 의의(猗猗)186하다
 안지정난(岸芝汀蘭)187 매우 맑으니 동정호(洞庭湖)188가 이 곳ियो
 풍래수면(風來水面) 이 때로다

적벽강(赤壁江)에 배를 타고 현종암(懸鍾岩)에 다다르니
 오십삼불(五十三佛) 타신 석선(石船) 사공(沙工) 없어 못 부리고
 석선(石船) 위에 매인 닻줄 지금까지 펼쳐져 있네
 현종(懸鍾) 바위 삼대(三大) 글자 양봉래(楊蓬萊)189의 친필(親筆)이요
 영랑포(永郎浦)에 파랑(波浪) 없어 구선봉(九仙峰)이 이에 비친다
 해금강은 봤거니와 신구만물(新舊萬物) 남았으니
 지금 와서 아니 보면 언제 다시 대하여 볼까
 신계사(神溪寺)에 당도(當到)하니 외금강(外金剛)의 기관(奇觀)이라
 집선봉(集仙峰)에 자던 구름 바람 따라 산락(散落)190하고
 문필봉(文筆峰)의 묘(妙)한 형용(形容) 세존봉(世尊峰)을 대(對)하였네
 보광(普光庵) 보운암(普雲庵) 두 암자(庵子)는 영불을 외는 상방(上房)이라
 금강굴(金剛窟)과 사자굴(獅子窟)과 상운법기(上雲法起) 문수암(文殊庵)을
 하나씩 들어가 탐문(探問)하니 명불허전(名不虛傳)191 사실이로다
 구룡연(九龍淵)이 어디인가 각근192이 흔들린다
 강천막막(江天漠漠)193한데 새가 날고 바람은 때때로 용음(龍吟)194이라
 금강문(金剛門)을 어서 걸어 옥류동(玉流洞)에 당도(當到)하니
 주전옥반(珠轉玉盤)195 그 형상(形像)은 죽루쇄옥(竹樓碎玉) 그 소리라
 비봉폭포(飛鳳瀑布) 생겼거든 무봉포(舞鳳沛)가 있지말지
 구룡포(九龍沛)의 직하수(直下水)는 삼천척(三千尺)이 비소(卑小)196하니
 의시은하(疑是銀河) 낙구천은(落九天)197은 불시 과연 명소(名所)로다
 만장노기(萬丈怒氣)198 높았으니 한 줄기 흘러 일담(一潭)이라
 여시여시(如是如是)199 부여시(復如是)는 팔담(八潭)의 맑은 물 되었도다
 철사(鐵絲) 한번 휘어잡고 등고원망(登高遠望)200 하여보니
 서촉비단(西蜀緋緞) 백년상에 삼월이화(三月梨花) 난만(爛熳)201하다
 오던 짝지 다시 돌려 신계사(神溪寺)에 유숙(留宿)하고
 극락(極樂) 고개 넘어서서 온정리(溫井里)에 다다르니
 무연화(無烟火)202가 있었는지 백비탕(白沸湯)203이 절로 있네
 세조열녀 온천수(溫泉水)는 중생약왕(衆生藥王)204 이 아닌가
 기년고해(幾年苦海)205 모든 때를 맑은 물에 목욕하고
 온정령(溫井嶺) 가던 길로 육화암(六花岩)에 득달(得達)206하니
 만물초(萬物肖)207에 동구(洞口)208로다 어서 가서 구경하세
 석로천년(石老千年)209는 부처 같고 고봉만장(高峰萬丈)210은 집 같도다
 와간성봉(臥看成峰) 칙성령(側成嶺)은 이 곳 두고 한 말이라
 인(人)이라면 인형(人形)이요 선(仙)이라면 선형(仙形)이라
 하운기봉(夏雲起峰)211 변환(變換)하니 그것을 위해 그러하다
 옥녀금병(玉女金屏) 난삽(亂插)212하고 전포장군(戰袍將軍) 싸우는 듯하다
 백억화신(百億化身)213 석가불(釋迦佛)이 백억분신(百億分身)214 하셨으며
 삼십이응(三十二應) 관세음(觀世音)이 보문(普門)215 시현(示現)216 하셨구나

해산선산(海山仙山) 돌올(突兀)217하여 거절하면 볼 수 없고
화중지병(畫中之餅)218 흡사하니 요기(饒飢)219하면 볼 수 없다
신구만물(新舊萬物) 다 본 뒤에 통천으로 내려가서
총석정(叢石亭)을 찾아가니 육면팔면(六面八面) 새긴 돌기둥
용화세계(龍華世界)220 기다리고 공수자(公輸子)221의 묘(妙)한 수단(手端)
석재탁마(石材琢磨)222 분주하다
야삼경(夜三更)223 파만리(波萬里)224에 갈매기가 위 아래로 날아오고
고저촌(庫底村)에 저문 안개 우양자귀(牛羊自歸) 촌향(村巷)225이라
금강산을 하직하고 함남 제일 죽원동에
명사십리(明沙十里)226 찾아가니 해당화는 간 곳 없고
송백청풍(松柏清風) 불어온다 내년 봄 다시 기약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팔월 소풍 고대하는데
와유(臥遊)227 금강(金剛) 누웠더니 떨어지는 낙엽의 크고 작은 소리에
놀라 일어나니 추산모(秋山暮)228라
종차(從此)229 금강(金剛) 멀어지니 어상망어(魚相忘於) 강호(江湖)230로다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어보소
인계(人界)가 과히 멀지 않으니 이름난 강산(江山) 편답(遍踏)231할 제
그 어디가 승경처(勝景處)232요 세계 제일 금강산은
사람마다 보는 이가 저마다 모두 찬성하니
이 내 몸이 여자이지만 한번 구경하는 것이 소원(所願)이니
천우신조(天佑神助)233 하였든지 무인(戊寅) 팔월 십팔일은
호풍(好風)이 인도하여 바람을 따라갔는지
사람을 따라갔는지 금강산에 인도하여
십오일을 구경하니 정신이 싹싹하여
다시금 살펴보니 별유천지(別有天地)234 거기로다
듣던 중 상쾌하며 보던 중 제일 구경
팔월 설풍(雪風) 별세계라
곳곳에 단풍 빛은 수단(繡緞)234같이 찬란하고
곳곳에 부처님은 사람 보고 웃는 듯하더라
관사처럼 지은 절은 오색단청 기절(奇絶)236터라
경성으로 구경가니 인가(人家)도 굉장하다
거리거리 차 소리에 보이는 차 얼른 타고
고향으로 내려오니 몽가청상 이 아닌가
언제 혹시 그 곳 가서 이번 같이 놀아볼고
한가히 누워 생각하니 기절(奇絶)한 고봉수석(高峰水石)
철사 줄 쇠다리가 어제 본 듯 완연하다
심중(心中)에 미진한 것 많으나 사람마다 일반이라
서중 기축지같은 여자 탄식 슬프도다

이 가사 금강산에 단체로 간 단장(團長)이
지었으니 내 갔던 자취로 베껴 왔으니
심심하거든 보아라

[각주]

- 1) 지척(咫尺) : 아주 가까운 거리.
- 2) 죽장망혜(竹杖芒鞋) : 대지팡이와 짚신이란 뜻으로, 먼 길을 떠날 때의 아주 간편한 차림새를 이르는 말.
- 3) 단표자(單瓢子) : 한 개의 표주박.
- 4) 삼삼오오(三三五五) :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함. 또는 그런 모양.
- 5) 작반(作伴) : 짝을 이룸. 동행자나 동무로 삼음.
- 6) 봉래(蓬萊) : 금강산의 별칭. 여름의 금강산을 달리 이르는 말.
- 7) 단발령(斷髮嶺) : 강원도 김화군과 회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 신라의 왕자 혹은 고려의 태조가 이 고개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음. 높이는 834미터.
- 8) 장안사(長安寺) : 강원도 금강산에 있는 큰 절. 신라 법흥왕 원년(514)에 진표(眞表)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성종 때 크게 확장되었음.
- 9) 로령신(路靈神) : 길 가에 서 있는 영신(靈神). 영신(靈神)은 영감이 있는 신을 뜻함.
- 10) 축객(逐客) : 손님을 푸대접하여 쫓아냄.
- 11) 헐각(歇脚) : 잠시 멈추어 다리를 쉼.
- 12) 산천경개(山川景概) : 자연의 경치.
- 13) 첩첩(疊疊) :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모양.
- 14) 벽계(碧溪) : 물이 맑아 푸른빛이 도는 시내.
- 15) 번화(繁華) : 번성하고 화려함.
- 16) 대웅보전(大雄寶殿) : 본존불상(本尊佛像)을 모신 법당(法堂). 사찰에서 가장 큰 법당.
- 17) 감전(紺殿) : 감색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절'을 이르는 말.
- 18) 삼세여래(三世如來) : 삼세여래(三世如來)
- 19) 육광보살(六光菩薩) : 육광보살(六光菩薩)
- 20) 사성전(四聖殿) : 사성(四聖), 곧 아미타불(阿彌陀佛)·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대해중보살(大海衆菩薩)을 모신 법당.
- 21) 나옹조사(懶翁祖師) : 고려 공민왕 때의 왕사(王師, 1320~1376). 속성은 아(牙). 호는 나옹 또는 강월헌(江月軒). 중국 서천(西天)의 지공화상(指空和尚)을 따라 심법(心法)의 정맥(正脈)을 받아 왔음. 지공·무학(無學)과 함께 삼대화상(三大和尚)의 한 사람으로 불림. 시호(諡號)는 선각(禪覺).
- 22) 현판(懸板) : 글자나 그림을 새겨 문 위나 벽에 다는 널조각. 흔히 절이나 누각, 사당, 정자 따위의 들어가는 문 위, 처마 아래에 걸어 놓음.
- 23) 우화유세(羽化遺世) : 사람의 몸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어 세상사를 잊음.
- 24) 표표(飄飄) : 팔랑팔랑 가볍게 나부끼거나 날아오름.
- 25) 조건(造建) : 건조(建造)와 같은 말. 건물이나 배 따위를 설계하여 만듦.
- 26) 석가(釋迦) : 석가모니(釋迦牟尼). 불교의 개조. 기원전 624년에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29세 때에 출가하여 35세에 득도하였음.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다니며 포교하다가 80세에 입적하였음.
- 27) 지장(地藏) : 무불 세계에서 육도 중생(六道衆生)을 교화하는 대비보살. 천관(天冠)을 쓰고 가사(袈

綵)를 입었으며, 왼손에는 연꽃을, 오른손에는 보주(寶珠)를 들고 있는 모습임.

28) 청연(靑烟) 곳곳 : 빛깔이 푸른 연기가 피어나는 곳곳.

29) 한등여창(寒燈旅窓) : 등불이 쓸쓸히 비추는 나그네가 거처하는 방. 또는 객지에서 묵고 있는 방.

30) 사창서색(紗窓曙色) : 사창(紗窓)을 통해 보이는 새벽녘의 빛. 사창은 비단으로 바른 창. 젊은 여인의 침실을 일컫기도 함.

31) 영롱(玲瓏) : 광채가 찬란함.

32) 청려장(靑藜杖) : 명아쭈대로 만든 지팡이.

33) 업경대(業鏡臺) : 중생(衆生)의 선악(善惡)의 업(業)을 환하게 비치어 보는 거울이 있는 곳. 명경대(明鏡臺)라고도 함. 내금강 명경대 구역의 명승은 모두 불경에서 나오는 염라국의 관직, 지명(地名)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그에 맞는 전설을 가지고 있음.

34) 명경대(明鏡臺) : ① 저승의 입구에 있다는 거울. 지나가는 사람의 생전의 행실을 그대로 비춘다고 함. ② 내금강의 입구에 있는 명소. 물에 비치는 그림자가 마치 거울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35) 옥경대(玉鏡臺) : ① 저승의 입구에 있다는 거울. 자신의 잘못된 일을 비춰준다고 함. ② 내금강의 입구에 있는 명소.

36) 서국(西國) : 본문에서는 저승을 의미함.

37) 진경(秦鏡) : 선악을 꿰뚫어 보는 사람의 안목과 식견을 이르는 말.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사람의 선악, 사정(邪正)을 비추어 보았다는 거울에서 유래함. 본문에서는 저승 입구에 있어 사람의 지나간 과실을 비춰준다는 거울을 의미함.

38) 풍도세계(豐都世界) : 지옥. 풍도(豐都)는 도가에서 지옥을 이르는 말임.

39) 전율(戰栗) : 몹시 무섭거나 두려워 몸이 벌벌 떨림.

40) 경순왕자(景順王子) :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태자인 마의태자(麻衣太子)를 가리키는 뜻함. 경순왕이 왕건(王建)에게 항서(降書)를 보내자 이를 반대하여 개골산(皆骨山)으로 들어가 마의(麻衣)를 입고 여생을 보냈음.

41) 영원암(靈源庵) : 영원암은 신라 때 영원조사(靈源祖師)가 창건한 암자로 금강산 일원에서도 가장 맑고 고요한 수도처로 이름 높은 곳임.

42) 영원조사(靈源祖師) : 신라 때의 고승.

43) 견성처(見性處) : 깨달음을 얻은 곳. 견성(見性)은 오도(悟道)·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도 함. 참자기를 알게 되는 것, 깨달음이 열리는 것이란 뜻임.

44) 의의(猗猗) : 아름답고 성함.

45) 시왕사자(十王使者) : 저승에 있다는 십대왕(十大王)의 사자(使者). 사람이 죽으면 십대왕에게 생전에 지은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함.

46) 우두마면(牛頭馬面) : 지옥에 있는 우두인신, 마두인신의 옥졸을 말하는데 우두마두(牛頭馬頭)라고도 함. 손에 철창을 쥐고 죄인을 찌르거나 태우는 최하급의 명졸(冥卒)임.

47) 제강중중(帝綱重重) : 제망중중(帝網重重)과 같음. 하늘의 그물에 백천 개의 진주가 연결되어 있으나 그 개개의 진주가 발하는 빛은 상호 스스로의 빛으로 반영되어 타(他)를 비춘다는 뜻임.

48) 열립(列立) : 여럿이 죽 벌여 섬.

49) 명부(冥府) : 사람이 죽은 뒤에 간다는 영혼의 세계. 또는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 곳.

50) 도장(道場) : 도량(道場)으로 읽음. 도량은 부처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

하는 곳을 의미함.

51) 일고(一顧) : 한 번 돌아봄.

52) 영왕불파(閻王不怕) 패금어(珮金魚) : 영라대왕은 금어(金魚)도 겁을 내지 않음.

53) 무량(無量) :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54) 천태산(天台山) : 중국 절강성(浙江省) 동북부에 뻗어 있는 산으로, 도교(道教)의 승지(勝地) 중 하나이며, 불교(佛敎) 천태종(天台宗)의 발상지(發祥地)임.

55) 나반존자(那畔尊者) :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깨달아 성인이 된 사람으로 사찰에서는 독성각(獨聖閣)에 모셔지며 산신·칠성과 함께 삼성각에 모셔지기도 함.

56) 천진면목(天真面目) : 천진한 면목, 곧 자연 그대로의 참된 진리의 모습.

57) 회정선사(懷正祖師) : 신라 선덕여왕 시대의 고승.

58) 울밀(鬱密) : 나무가 무성하게 뻗뻗함.

59) 나월송풍(蘿月松風) : 녹라 녁굴에 비치는 달빛과 소나무에 불어오는 바람.

60) 명연담(鳴淵潭) : 울소라고도 함. 금동거사가 나옹선사와의 내기에서 지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뛰어들어 자결했다는 전설이 있음.

61) 김동거사(金同居士) : 금동거사. 나옹선사의 제자로 금강산 표훈사에 머물렀음. 표훈동 입구의 큰 바위 앞면에 나옹선사는 삼불을 새기고, 금동거사는 뒷면에 60개의 작은 좌불상을 새겼음.

62) 명종처(命終處) : 생을 마친 곳.

63) 삼자(三子) : 금동거사가 자결하자, 뒤이어 따라 죽은 삼형제를 가리킴.

64) 삼불암(三佛岩) :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內剛里) 봉래동(蓬萊洞)에 있는 마애불(磨崖佛) 바위. 북한 보물급 41호. 삼각형의 바위 앞면에 나옹선사가 부처 셋을 새김.

65) 나옹선사(懶翁禪師, 1320-1376) : 고려 말의 고승(高僧)으로 중국 각지를 편력하며 견문을 넓힌 뒤 귀국하여 왕의 요청으로 신광사(神光寺)에 머물며 홍건적(紅巾賊)의 침입 때 사찰을 지킴.

66) 수충영각(酬忠影閣) :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장연리 금강산 표훈사에 있는 건물. 서산대사와 사명대사(四溟大師)를 비롯하여 고려 말의 명승 지공(指空)과 나옹의 진영(眞影)을 봉안하였던 곳임.

67) 홍도비구(弘道比丘) : 표훈사에 딸린 암자, 돈도암에서 수행하던 비구승. 손을 다쳐 화를 낸 탓에 뱀으로 변했다고 함.

68) 함영고 : 함영누(涵影樓)의 오기인 듯. 함영루는 내금강에 위치한 표훈사에 있는 누각.

69) 능파누 : 능파루(凌波樓)의 오기인 듯. 능파루는 내금강에 위치한 표훈사에 있는 누각.

70) 상설반야(常說般若) : 반야심경을 항상 설파함.

71) 법기보살(法起菩薩) : 『화엄경(華嚴經)』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나오는 보살로, 금강산에 있다고 전해짐. 표훈사의 주존불.

72) 현신(現身) :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중생의 기근(機根)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

73) 명부전(冥府殿) :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영라대왕과 시왕(十王)을 모신 법당.

74) 사시향화(四時香火) : 네 계절 내내 부처님 앞에 바치는 꽃과 향.

75) 부절(不絶) :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됨.

76) 연사모종(烟寺暮鍾) : 안개 싸인 절에 울리는 저녁 종소리.

77) 처처제조(處處啼鳥) : 곳곳에서 새가 지저귀.

78) 삼간일(三竿日) : 아침 해가 높이 뜬 날. 일고삼장일(日高三丈日)과 같은 말.

- 79) 정양사(正陽寺) :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장연리 금강산 표훈사(表訓寺) 북쪽에 있는 절. 무왕 1년(600)에 백제의 고승 관륵(觀勒)과 강운(降雲)이 창건하였음.
- 80) 대관(大觀) : 크고 넓게 전체를 내다봄. 또는 그런 관찰.
- 81) 갱상일층(更上一層) : 다시 한 층을 올라감.
- 82) 주석(主席) : 주가 되는 자리. 최고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 83) 육백반야(六百般若) : 현장(玄奘)이 번역 집대성한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600권을 말함. 반야경은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의 깊은 이치를 설(說)한 경전임.
- 84) 해조음(海潮音) : 중생이 '나무관세음(南無觀世音)'이라고 염불함에 대하여 관세음보살이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익을 줌을 해조 소리에 비유한 말.
- 85) 운집(雲集) : 구름처럼 모인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을 이르는 말.
- 86) 방광대(放光臺) : 고려 태조가 정양사에 왔을 때 법기보살(法起菩薩)이 현신(現身)하여 석상(石上)에서 방광(放光 : 빛이 남)을 하였고 전해지는데, 법기보살이 현신한 곳을 방광대(放光臺)라고 함.
- 87) 배재령(拜再嶺) : 법기보살의 현신을 보고 감동한 고려 태조가 빛이 나타났던 바위에 정례(頂禮)하고 절을 중창했다고 하는데, 태조가 정례한 곳을 배점(拜帖) 또는 배재령이라고 함.
- 88) 제일인간(第一人間) 기절처(奇絶處) :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제일 신기하고 기이한 곳, 경치.
- 89) 소인묵객(騷人墨客) : 소인(騷人)과 묵객(墨客). 소인은 중국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이 지은 「이소부(離騷賦)」에서 유래한 말로, 서정적인 시부(詩賦) 및 글을 쓰는 사람. 풍류(風流)를 풍류를 즐기며 노래하고 읊는 사람. 묵객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
- 90) 악양루(岳陽樓) : 중국 호남성(湖南省) 악양현(岳陽縣) 서쪽(城西)의 누문(樓門)으로 동정호(洞庭湖)에 면해 있어서 경치가 뛰어남.
- 91) 한산사(寒山寺) : 중국 장쑤 성(江蘇省) 쑤저우 시(蘇州市) 교외의 평차오(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의 시로 유명함.
- 92) 약사전(藥師殿) : 약사여래(藥師如來)를 모신 법당. 약사여래(藥師如來)는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재화(災禍)를 소멸하고, 의복 음식 등을 만족케 하며, 또 부처의 행을 닦아 무상보리(無上菩提)의 묘과(妙果)를 증득케 한다고 서원(誓願) 했음.
- 93) 수미탑(須彌塔) : 표훈사로부터 20리 정도 되는 곳에 있는 탑. 암석이 층층으로 쌓여 탑을 이룸.
- 94) 점행(漸行) : 차츰 나아감. 천천히 나아감.
- 95) 용추지(龍湫池) : 폭포물이 떨어지는 바로 밑의 깊은 웅덩이. 용이 잠겨 있는 듯한 깊은 못.
- 96) 나한(羅漢) : 아라한(阿羅漢)의 약칭. 소승불교(小乘佛敎)에 있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이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대승(大乘)·소승(小乘)을 통틀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를 가리키는 말.
- 97) 소소역력(昭昭歷歷) : 환하고 또렷함.
- 98) 선암(船庵) : 표훈사에 딸린 암자로, 고려 광종 때 박빈거사(朴彬居士)가 창건했다고 함. 부근에는 박빈거사가 용선(龍船)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강선암이 있음.
- 99) 표자(瓢子) : 표주박.
- 100) 동서사우(東西四隅) : 동서남북 네 방향. 사방이나 천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01) 석년(昔年) : 옛날.
- 102) 무근수(無根水) : 깊은 산중에 새로 우뚝히 팬 땅에 권 물. 그 성질이 움직이지 않고 흠 기운이 있으므로 비위조절(脾胃調節)·진식(進食)·보익(補益)의 약제를 달이는 데 쓰임. 요수(潦水).

- 103) 원효(元曉) : 신라의 승려(617~686). 해동종(海東宗)의 시조로 신라 10성(聖)의 한 사람으로 꼽힘. 일찍이 중국 당나라에 유학하러 갔다가 도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 되돌아와서 공부하여 많은 저서를 썼으며, 그의 사상은 신라통일의 중요한 요인이 됨.
- 104) 야운(野雲) : 신라 원효 스님의 제자.
- 105) 호활(浩闊) : 막힌 데 없이 넓고 시원시원함.
- 106) 약수유사(弱水遺事) : 약수에서 전해져 오는 일. 약수는 옛날 중국의 전설에서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강. 신선만이 건널 수 있으며, 그 길이는 삼천리나 된다고 함.
- 107) 우전왕(優填王) :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의 왕. 왕비의 권유로 부처에 귀의하고, 인도에서 최초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함.
- 108) 수교(手巧) : 손재주.
- 109) 봉래풍악(蓬萊楓岳) 원화동천(元化洞天) : 봉래·풍악산에 있는, 조화의 근원이 되는 골짜기라는 뜻. 봉래와 풍악은 모두 금강산의 별칭임.
- 110) 휘황(輝煌) : 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임.
- 111) 사호선인(四皓仙人) :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부인 여후(呂后)를 피해 상산(商山)에 은거(隱居)한 네 노인을 가리킴. 즉 동원공(東園公)·하황공(夏黃公)·기리계(綺里季)·각리선생(角里先生) 등 네 노인(老人)을 말하는데, 이들은 상산에서 바둑이나 두고 한일월(閑日月)했다고 전함.
- 112) 옥선봉(玉仙峰) : 옥선봉(玉仙峰)의 오기인 듯. 옥선봉은 금강산 일만이천 봉우리 중 하나임.
- 113) 의희(依希) : 그럴 듯하게 비슷함. 방불(彷彿)과 같은 말.
- 114) 소의현상(素衣玄裳) :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 115) 알연장명(戛然長鳴) : 금석(金石)이 서로 부딪치어 나는 긴 소리.
- 116) 관음보살(觀音菩薩) :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보살의 하나. 대자대비(大慈大悲)하여 중생이 괴로울 때에 정성으로 그 이름을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 117) 세두분(洗頭盆) : 머리를 감을 때 쓰는 그릇.
- 118) 일엽홍련(一葉紅蓮) : 한 떨기 붉은 연꽃.
- 119) 계광산색(溪光山色) : 계곡의 빛과 산의 색.
- 120) 적실(的實) : 틀림 없음.
- 121) 호호탕탕(浩浩蕩蕩) : 끝없이 넓고 넓음.
- 122) 무변(無邊) : 끝이 없음. 또는 그런 모양.
- 123) 요락동천(寥落洞天) :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에 쓸쓸하게 떨어짐.
- 124) 금곡석순(金谷石崇) : 석숭은 중국 진(晉)나라의 부호이며 문장가로 후세에 부자를 비유하는 말로 쓰임. 금곡은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에 있는 명승지로, 석숭의 별장이 있었던 곳.
- 125) 청지백석(淸池白石) 요동처(聊同處) : 푸른 못과 흰 돌을 하나로 즐길 수 있는 곳.
- 126) 제월광풍(霽月光風) 갱별전(更別傳) : 비 갠 뒤의 달빛과 바람같이 깨끗한 풍광이 한결 새롭고 특이한 정취를 전해 줌.
- 127) 우암선생(尤庵先生) : 조선왕조 때의 정치가·학자인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우암은 그의 호. 서인(西人)의 거두로 남인(南人)과 논쟁하고, 후에는 노론(老論)의 거두로 활약함.
- 128) 호곡(號哭) : 소리를 내어 슬피 울. 또는 그런 울음.
- 129) 두수(抖擻) : 번뇌의 티끌을 털어 없애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으며 청정하게 불도를 닦는 일. 두타

(頭陀)와 같은 말.

130) 마하연(摩訶淵) : 금강산 내금강에 있는 유점사의 말사(末寺)로, 만폭동 가장 깊은 곳에 있음. 신라시대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지었다고 함.

131) 백수자화(柏樹子話) : 선종(禪宗)의 화두(話頭). 어떤 승려가 조주(趙州)선사에게 “달마조사가 서쪽으로부터 온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조주선사가 “저 들 앞에 백수자(柏樹子)로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후로 선종의 화두로 사용됨.

132) 해수관음(海水觀音) : 관세음보살과 같음.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하여 중생이 괴로울 때에 정성으로 그 이름을 외면 그 음성을 듣고 곧 구제한다고 함.

133) 도장(道場) : 도량(道場)으로 읽음. 도량은 부처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을 의미함.

134) 남순동자(南巡童子) : 관세음보살의 왼쪽에 있는 보처존(補處尊).

135) 좌우시위(左右侍衛) : 좌우 옆에서 모시어 호위함.

136) 배석대(拜席臺) : 의식(儀式)에서, 절을 하는 곳에 가는 자리. 또는 절을 하는 곳.

137) 불변(不辨) : 가려서 구별하지 못함.

138) 음광존자(飲光尊者) : 대가섭(大迦葉, Mahakasyapa)의 한역명(漢譯名). 부처님의 10대제자 중의 하나. 석존이 입멸(入滅)한 뒤, 5백 아라한을 데리고 제1결집(結集)을 하면서 그 우두머리가 됨.

139) 동순시(東巡時) : 동쪽으로 순시할 때.

140) 사선교(四仙橋) : 내금강 비로봉 계곡 끝에 있는 다리.

141) 해갈(解渴) : 목마름을 해소함.

142) 원객행인(遠客行人) : 멀리서 온 손님과 길 가는 사람.

143) 만류(挽留) : 붙들고 못 하게 말림.

144) 여산면목(廬山面目) : 중국 강서성(江西省) 북부의 구강시와 파양호 북서 기슭에 있는 명산(名山).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이 많고 맑은 물과 폭포가 유명하며, 산중에 늘 운무(雲霧)가 끼어 있어서 산봉우리를 보는 일이 쉽지가 않아

145) 특수(特秀) : 특별히 뛰어남.

146) 노춘씨(盧椿씨) : 신라 남해왕(南解王) 원년 당시의 고성군수(高城郡守)로, 월지국(月氏國)에서 온 53불을 맞이하여 모시고 유점사(楡岾寺)를 개창하였다는 인물.

147) 범우(梵宇) : 절. 사찰(寺刹). 범찰(梵刹)과 같은 말.

148) 능인보전(能仁寶殿) : 대웅전(大雄殿)과 같은 의미. 능인(能仁)과 대웅(大雄)은 모두 석가모니를 일컫는 말들임.

149) 전정중(殿庭中) : 불전 앞 뜰 가운데.

150) 오동(烏銅) : 검붉은 빛이 나는 구리. 오금(烏金)과 같은 광택이 있어 장식품으로 많이 쓰임.

151) 찰간(刹竿) : 큰 절 앞에 세우는 깃대와 비슷한 물건. 나무나 쇠로 만들며, 예전에 덕이 높은 승려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웠음.

152) 향풍(香風) : 향기로운 바람.

153) 청추(淸秋) : 맑게 갠 가을. 또는 음력 8월의 별칭.

154) 철위산(鐵圍山) : 수미산(須彌山)을 둘러싼 구산팔해(九山八海)의 아홉 산의 하나로, 맨 바깥쪽에 있는 쇠로 되었다는 산. 혹은 삼천세계의 각각을 둘러싼 산이라고도 함.

- 155) 사명영각(四溟影閣) : 사명당 유정(四溟堂 惟政, 1544~1610)의 초상(肖像)을 모신 곳. 유정은 임진왜란 때의 승병장(僧兵將). 시호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
- 156) 사해파정(四海波靜) : 천하(天下)의 풍파(風波)가 진정(鎮靜)되어 태평(太平)함을 이르는 말.
- 157) 혈각(歇脚) : 잠시 멈추어 다리를 쉼.
- 158) 득도흥성(得道興盛) : 오묘한 이치나 도를 깨닫고, (도가) 번성함.
- 159) 희황제(羲皇帝) : 중국 고대의 제왕인 복희씨(伏羲氏).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수위(首位)를 차지하며, 팔괘(八卦)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물을 발명하여 어렵(漁獵)의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 160) 봉견(奉見) : 받들어 봄.
- 161) 은영(隱映) :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서 은은하게 비침.
- 162) 망지울연(望之蔚然) : 멀리서 바라보면 더욱 크게 번성함.
- 163) 고절(高絕) : 더할 수 없이 높고 뛰어남.
- 164) 진세념(塵世念) :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살이에 대한 온갖 생각.
- 165) 돈절(頓絕) :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 166) 대소방원(大小方圓) : 크고 작고 모진 것과 둥근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67) 운소중(雲宵中) : 구름 낀 하늘 가운데.
- 168) 일성일패(一成一敗) : 한번 성공하고 한번 실패함. 또는 성공하는 때도 있고 실패하는 때도 있음.
- 169) 의탁(依託) :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 170) 정령위(丁令威) : 중국 한(漢)나라 때의 요동(遼東)사람으로, 고향을 떠나 영허산(靈虛山)에 들어가서 선도(仙道)를 배워 학이 되어 천년 만에 돌아와 화표주에 앉아 '내가 집을 떠난 지 천 년이 되어 이제 돌아오니, 성곽은 여전한데 사람들은 변했구나'라고 말했다는 고사(故事)가 있음.
- 171) 우의무(羽衣舞) : 깃털 옷을 입고 춤을 춤. 학들이 날개 짓 하는 모양을 비유한 말.
- 172) 낭자(浪蕪) : 여기 저기 흩어져 있음.
- 173) 오미지기(吾未知其) 소이(所以) :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음.
- 174) 자고이래(自古以來) :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는 역사가 생겨난 이래.
- 175) 무릉도원(武陵桃源) : 중국 진(晉)나라 때에 어부(漁父)가 계곡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따라 올라갔다가, 선경(仙境)을 발견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선경(仙境) 또는 낙원(樂園)을 가리킴.
- 176) 어주자(魚舟子) : 고기 잡는 어부.
- 177) 종차시지(從此始之) : 이로부터 시작됨. 이 뒤부터 시작됨.
- 178) 보현보살(普賢菩薩) : 문수보살과 함께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서 이덕(理德)·정덕(定德)·행덕(行德)을 맡음. 석존(釋尊)의 이(理)·정(定)·행(行)의 덕(德)을 알아보는 보살(菩薩).
- 179) 신묘(神廟) :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
- 180) 창해상전(滄海桑田) :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됨. 곧 세상의 모든 일이 덧없이 변천(變遷)함이 심한 것을 비유하는 말. 상전벽해(桑田碧海).
- 181) 기왕사(既往事) : 이왕에 지나간 일.
- 182) 유리세계(琉璃世界) : 유리와 같은 칠보(七寶)로 이룩된 청정(淸淨)한 세계.
- 183) 삼일포(三日浦) :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로 관동팔경의 하나. 신라 때에 네 화랑이 이곳에 왔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사흘을 머물렀던 데서 유래된 명칭임.
- 184) 표묘(飄渺) : 멀리 아득하게 보이는 모양. 한없이 크고 넓어서 어렵듯함.

- 185) 동천암 : 몽천암(夢泉庵)의 오기인 듯. 몽천암은 삼일포에 있는 고적(古跡).
- 186) 의의(猗猗) : 아름답고 성함.
- 187) 안지정난(岸芝汀蘭) : 언덕에 핀 지초(芝草)와 물가에 핀 난초.
- 188) 동정호(洞庭湖) :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중국 제일의 호수로 그 둘레가 7백리이며, 호수 가운데 악양루(岳陽樓)가 있음.
- 189) 양봉래(楊蓬萊) : 조선왕조 중기의 서예가인 양사언(楊士彦, 1517~1584). 봉래(蓬萊)는 그의 호. 자는 응빙(應聘). 회양군수(淮陽郡守)로 있을 때,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萬瀑洞)에 '봉래풍악 원화동천(蓬萊楓嶽 元化洞天)'이란 글씨를 썼다고 함.
- 190) 산락(散落) : 흩어짐.
- 191) 명불허전(名不虛傳) :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음을 이르는 말.
- 192) 각근 : 발뒤꿈치'를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 193) 강천막막(江天漠漠) : 강천이 아주 넓거나 멀어 아득함.
- 194) 용음(龍吟) : 소리를 길게 뻗.
- 195) 주전옥반(珠轉玉盤) : 옥쟁반 위에서 구슬이 구름. 또는 옥쟁반 위에서 구슬이 구르는 아름다운 소리.
- 196) 비소(卑小) : 보잘 것 없이 작음.
- 197) 의시은하(疑是銀河) 낙구천은(落九天) : (물줄기가) 마치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지는 듯함. 이태백 시의 한 구절임.
- 198) 만장노기(萬丈怒氣) : 만장 높이에 떨친 기운.
- 199) 여시여시(如是如是) : 이러저러함. 여차여차함.
- 200) 등고원망(登高遠望) :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봄.
- 201) 난만(爛熳) : 꽃이 활짝 많이 피어 화려함.
- 202) 무연화(無烟火) : 연기가 없는 불. 연기가 안 나는 불.
- 203) 백비탕(白沸湯) : 맹탕으로 끓인 물. 백탕. 본문에서는 온천을 의미함.
- 204) 중생약왕(衆生藥王) : 일반 사람들이 쓰는 약 중 최고라는 뜻임.
- 205) 기년고해(幾年苦海) : 몇 해동안의 고해. 고해는 생(生)·노(老)·병(病)·사(死)의 사고(四苦)가 반복되는, 고통이 많은 인간세상. 괴로움과 근심이 끝없이 많은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 말.
- 206) 득달(得達) : 목적인 곳에 도달함. 또는 목적을 이룸.
- 207) 만물초(萬物肖) : 만물상의 다른 이름. 만물상은 금강산에 있는 바위산으로 바위가 여러 가지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기묘한 경관을 이루고 있음.
- 208) 동구(洞口) : 동네 어귀. 또는 절로 들어가는 산문(山門)의 어귀.
- 209) 석로천년(石老千年) : 천 년 세월의 오래된 바위.
- 210) 고봉만장(高峰萬丈) : 만장 높이의 높은 봉우리.
- 211) 하운기봉(夏雲起峰) :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를 이룸. 중국 진(晉)나라의 문인인 도잠(陶潛)이 지은 <사시(四時)>의 한 구절임.
- 212) 난삽(亂插) : (글이나 말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어렵고 까다로움.
- 213) 백억화신(百億化身)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석가모니의 화신.

- 214) 백억분신(百億分身)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체로 분신함. 불교에서 분신이란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것 또는 그 몸을 의미함.
- 215) 보문(普門) : 화엄종에서, 우주의 모든 사물은 저마다 일체의 법(法)을 포섭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 216) 시현(示現) : 불교에서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변화하여 나타냄.
- 217) 돌올(突兀) : 높이 솟아서 오뚝함.
- 218) 화중지병(畫中之餅) : 그림의 떡.
- 219) 요기(饒飢) : 시장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 220) 용화세계(龍華世界) : 용화장세계(龍華藏世界)의 준말로, 석존 입멸(入滅) 후 이 세상에 출현할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오는 세계.
- 221) 공수자(公輸子) :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 소공(昭公)의 아들이자 교묘한 재주를 가진 장인(匠人)으로, 공윤반(公輸班)이라고도 불림. 대나무를 깎아 까치를 만드니 3일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함.
- 222) 석재탁마(石材琢磨) : 돌과 재목을 쪼고 갈아서 다듬음.
- 223) 야삼경(夜三更) : 밤의 삼경시(三更時). 대개 자정을 전후한 시간. 한 밤중.
- 224) 파만리(波萬里) : 파도가 먼 곳까지 침.
- 225) 촌항(村巷) : 시골의 후미지고 으스스한 길거리.
- 226) 명사십리(明沙十里) : 함경남도 원산시의 동남쪽에 있는 모래사장. 모래가 곱고 부드러운 해수욕장과 해당화로 유명함. 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27) 와유(臥遊) :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으로, 집에서 명승이나 고적을 그린 그림을 보며 즐거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28) 추산모(秋山暮) : 저물어 가는 가을 산.
- 229) 종차(從此) : 이 뒤. 또는 이로부터.
- 230) 어상망어(魚相忘於) 강호(江湖) : 물고기가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 잊고 있음. 『장자』에 나오는 구절.
- 231) 편답(遍踏) : 이곳저곳을 널리 돌아다님. 편력(遍歷)과 같은 말.
- 232) 승경처(勝景處) : 경치가 빼어나 이름난 곳.
- 233) 천우신조(天佑神助) :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 234) 별유천지(別有天地)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의 다른 세상, 즉 낙원, 이상향. 또는 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은 곳.
- 235) 수단(繡緞) : 수놓은 것같이 짠 비단.
- 236) 기절(奇絶) : 아주 신기하고 기이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